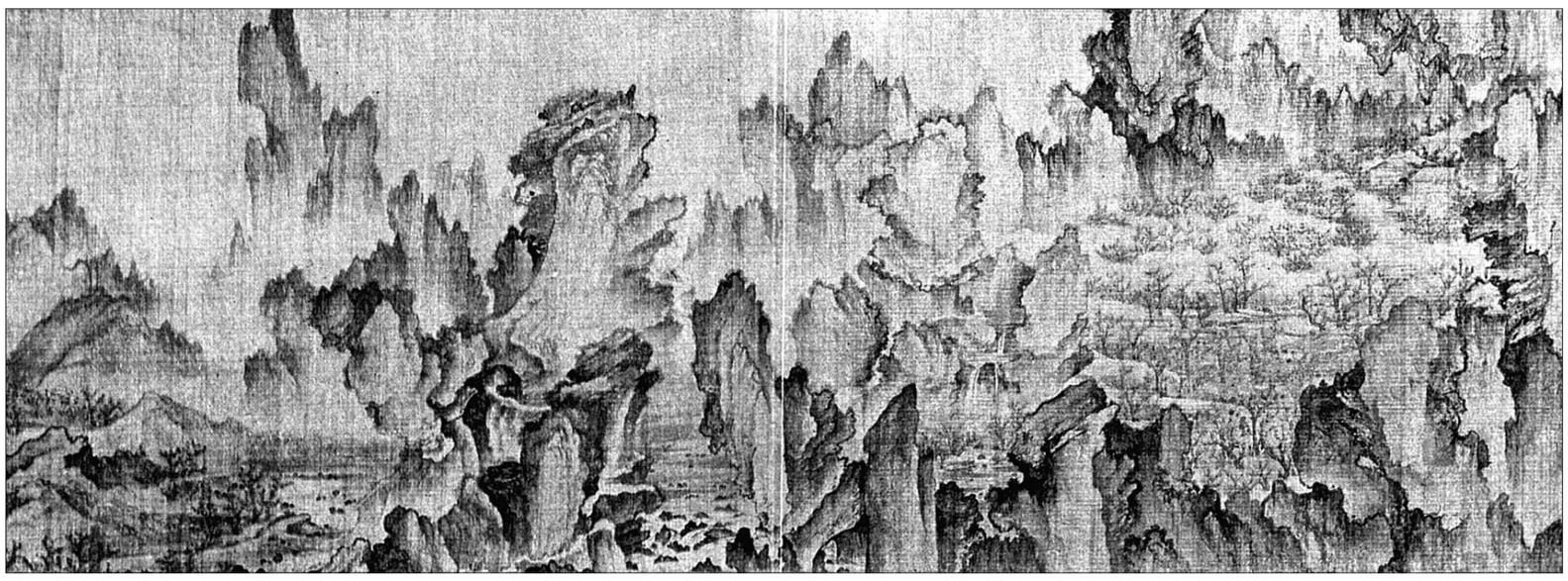
# 신미·수미대사와 훈민정음 창제 관여

##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 ㉞ 희현당 신숙주



안견의 〈몽유도원도〉(1447년, 견본담채, 38.6x106.2cm, 일본 奈良 天理大中央圖書館 소장). 조선 전기 문재로 자자했던 신숙주는 〈몽유도원도〉에 찬문(贊文)을 올릴 만큼 시서(詩書)에 능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88)는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 찬문(贊文)을 올릴 만큼 시서(詩書)에 능했던 인물이다. 특히 송설체(松雪體)를 잘 썼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원대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완성한 서체이다. 왕희지의 서체를 법 삼아 유려하고 굳센 서체를 만들었던 조맹부는 고려 후기 이제현(李齊賢, 1287~1367)과 깊이 교유했다. 그러기에 조맹부의 아내 관도승이 죽었을 때에 이제현이 멀리 호주까지 문상을 갔던 것이니 그들의 사귐은 신분과 나이, 학식과 국경을 초월했던 셈이다. 따라서 고려에서 송설체가 유행한 것은 이제현의 영향이 컸으니 신숙주가 송설체에 능한 것은 조선 전기 문화계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의 자는 범옹(泛翁)이며, 호는 희현당(希賢堂), 보한재(保閑齋)이다.

그의 환로(宦路)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더라도 화려한 전력을 거쳤다. 1438년 사마양시에 합격한 후 이듬해 친시문과에 급제하여 전농시직장(典農寺直長)이란 벼슬을 시작으로, 집현전부수찬이 된 것은 1441년의 일이다. 그는 능력이나 경륜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겼지만 역사의 평가는 영달을 선택한 변절자로 폄하한다. 절개를 저버린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이처럼 가혹한 것이다.

하지만 젊은 날 서장관으로 일본에 사신을 갔을 때에 그의 문명(文名)은 일본에서도 자자하였다. 1450년 중국 사신 예겸(倪謙)과 사마순(司馬恂)도 그의 뛰어난 문재에 감동했다는 일화는 그가 뛰어난 재주를 가졌던 인재였음을 드러낸다. 동시대의 인물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그와 함께 국가의 우수한 인재로서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궤도가 달랐다. 절세의 충신 성삼문과 시류를 따른 신숙주의 인생은 시대 상황을 살아야했던 사람의 선택인가 아니면 시절의 인연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명수(命數) 때문인가. 결과적으로 신숙주가 동갑이었던 수양대군(首陽大君, 1417~1468)을 만난 인연은 그의 운명을 바꾼 셈이다. 세조가 왕권을 찬탈한 후, 그는 한명회와 함께 화려한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에 대한 세조의 신임은 당 태종 때의 명신 위징(魏徵, 580~643)에 견줄 정도였다고 하니 총애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는 훈민정음 창제에도 깊이 관여했으니 이는 출중한 언어 이해력 때문이었다. 이 일로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운 수미대사와도 깊이 교유하였던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선종판사 수미를 전송하며 스님이 도갑사로 돌아갔다(送禪宗判事壽眉 師還道岬)〉에서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금성의 저녁 모습, 밥하는 연기도 끊어지고(錦城暮色炊煙斷)**
**도갑사의 가을 빛, 감잎마저 드물구나(道岬秋光* 葉稀)**
**원숭이와 학 같은 옛 벗, 다시 번뇌하지마라(猿鶴舊遊休更惱)**
**이제 늙은 선승, 이미 욕심이 없으리니(如今禪老已忘機)**

이것은 도갑사로 돌아가는 신미대사를 위해 쓴 일종의 전별시이다. 당시 신미대사는 선종판사라는 승과 벼슬에 있었으며 도갑사로 돌아가는 신미대사와의 이별을 담담히 그렸다. 금성은 지금의 나주지방이고 도갑사는 월출산에 위치한 절이다. 특히 이 시에서 "원숭이와 학(猿鶴)"의 고사가 눈에 띈다. 이는 〈태평어람(太平御覽)〉에도 소개되었는데 바로 "주나라 목공이 남쪽을 정벌할 때에 전군이 전사하여 군자는 원숭이와 학이 되고 소인은 벌레와 물여우가 되었다(周穆公南征 一軍盡化 君子爲猿爲鶴 小人爲蟲爲沙)"고 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미대사는 욕심을 잊은(忘機) 수행승이기 때문이기에 떠나보내도 근심할 것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편 그가 교유했던 승려로는 일암과 수미대사, 학전(學專) 승려, 교종판사 해초절암(敎宗判事 海超絶菴), 그리고 일암의 제자 등이다. 그의 문집 〈보한재집〉에는 이들과 화운한 수편의 시가 남아 있다. 하지만 그는 조선 전기 유학자들과는 다른 교유의 특성을 보인다. 바로 그가 교유했던 승려들로는 일암이나 신미대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그는 일암과의 첫 인연을 〈일암송당의 시권에 쓰다(一菴松堂卷記)〉에 상세히 수록해 두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암 송당 전 승려는 승려 중에 우수한 사람이다. 내가 정통 임술(1442) 겨울에 와성 이백옥, 평양 박인수, 단계 하중장, 참령 성군보, 제군들과 임금의 명으로 복정산의 진관사에서 독서했을 때에 전상인 또한 먼저 주석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함께 얼굴을 익혔는데 (전 승려의) 풍모는 맑고 여위였으며 마음은 훌륭하고도 밝았다. 우리 유가서(儒家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책을 널리 읽었고 더욱이 시율에 달통하였다. 마침내 침소를 맡긴 어느 날 저녁에 시권을 내서 시를 구하였으니 그가 바로 천봉에 사는 (운명을 타고난) 일암 송당이다. 제군들은 이미 전 승려를 중히 여겨 모두 시를 지었고 상인은 나에게 기록하기를 부탁했지만 나는 여유가 없다고 거듭 사양하였다.(一菴松堂專上人。釋之秀者也。僕於正統壬戌之冬。與甄城李伯玉, 平陽朴仁 ㅇ丹溪河仲章, 昌寧成謹甫諸君。受命讀書于覆鼎山之津寬寺。上人亦先住錫。始與識面。道骨淸癯。精神秀朗。於吾儒書。亦頗涉獵。而尤通於詩律。遂司寢處。一夕。出一卷求詩。 z千峯所命一菴松堂也。諸君旣重上人。皆有詩。上人屬僕記。僕敦讓未遑)

그가 일암 승려를 만난 것은 1442년 겨울, 진관사에서다. 바로 독서 휴가를 받아 진관사에 머무른 듯하다. 당시 진관사에는 신숙주뿐 아니라 이백옥, 박인수, 하중장, 성군보 등이 있었다. 당시 그가 본 일암의 첫인상은 풍모는 맑고 여위였으며 마음은 훌륭하고도 밝았다. 따라서 일암은 선승의 풍모를 갖춘 수행자였고 유가서에도 해박한 학승의 풍채를 지닌 승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암과의 첫 만남 이후, 신숙주는 일본으로 사신을 떠났으며 외로운 타향에서 일암과 나눴던 청론(淸論)을 늘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다시 상봉하게 된 내력은 이렇게 이어진다.

십여 개월을 지나고 서울로 돌아오니 상인은 이미 개성의 흥교사로 옮겼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상인이 새벽에 형문을 두드리니 그와 더불어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상인이 말하기를 그대와 이별한 지 3일이 지나 괄목상대하였다. 하물며 그대는 이미 나의 시권에 시를 썼으니 말할 것도 없이 (시축에 글을) 쓸 만하다. 내가 바야흐로 오래 이별하였다가 새로 만나니 기뻐서 거듭 사양하지 못한 채 그에게 말하기를 일암송당 승려이니 어찌 쉽게 말하랴. 그러나 짐짓 들으니 하늘은 변함없이 사시를 운행하여 만물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사람은 한결같음으로써 만 가지 다름에 응한다하니 지성이어야 그침이 없는 것이다. 지극하구나. 한결같음의 덕이여. 증자도 다만 진적력구(眞積力久:참을 알고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의 여유를 들으셨으니 도리어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들으니 고인이 소나무를 논함에 하늘에서 수명을 받아 겨울이나 여름에도 푸르다하니 대저 소나무는 여름에도 번성하지 않고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사계절이 지나도 한결같으니 그 또한 한결같음을 얻은 것이로다. 사람도 혹은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유자와 승려도 일(一)의 뜻이 어찌 다르랴. 상인이 그 진실로 암자 하나, 집에는 소나무뿐임을 이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끝까지 소나무에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일(一)은 이미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법문의 불이의 설이다.(經十餘月得還于京。則上人已移錫開城之興敎寺。不數日。上人晨扣荊門。與之從容竟日。上人曰。士別三日。刮目相待。況子旣詩吾卷。可無說以爲記乎。余方以久別新遇爲喜。不復辭。謂曰。上人一菴松堂。豈可易以言哉。然竊聞天得一以運四時。化生萬物。人得一以應萬殊。至誠不息。至矣哉。一之爲德也。曾子亦僅聞於眞積力久之餘。顧僕何人。而可得言哉。又聞古人論松。受命于天。在冬夏靑靑。夫松不爲夏榮。不爲冬枯。貫四時而一節。其亦物之得一者歟。在人亦或有不能及者焉。儒之與釋。一之義何嘗異也。上人其毋苟爲菴一堂松而已爾。其毋終爲松所 A也。一旣僕所不得言。而法門不二之說)

**송설체(松雪體) 능한 문재**
**日·中 사신도 문장력 감탄**
**세간 '변절자' 폄하 받지만**
**허망한 功名의 이치 깨달아**

그는 일암이 송당이란 당호의 의미를 '소나무처럼 언제나 한결같음을 얻은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시축의 말미에 서문을 쓴 연유도 "유자와 승려도 일(一)의 뜻이 어찌 다르랴. 상인이 그 진실로 암자 하나, 집에는 소나무뿐임을 이른 것은 아닐 것이다"는 것에 있었다. 이 당시만하여도 그는 충절을 숭상하는 선비였던 것이다. 하지만 세조를 만나 그의 정치 이념을 따랐기에 상대적으로 부귀를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악평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다른 시 〈고산사의 시운을 차운하여(次高山寺詩韻)〉에서는 부생의 득실은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노래한 적도 있었다.

**나는 지금 불가의 승려가 되고 싶으니(我今欲爲佛和南)**
**반백 공명은 한 끼의 달콤함이라(半百功名一餉 )**
**별안간 오는 높은 벼슬, 평소의 바람이 아니었으니(軒冕 非素願)**
**부생의 득실이란 말로 허용하기 어렵네(浮生得失不容談)**

고산사의 학추 승려에게 써준 시이다. 이 시를 쓰게 된 내력은 부주(附注)에서 "아들 형과 손자 종흡이 성남 고산사에서 독서를 하였다. 하루는 시축 하나를 가져와 말하기를 하동의 정 상공이 다시 고산사에서 노닐 적에 모두 시를 지었고 또 화답한 시도 있었다. 이 절의 승려 학추가 시축을 만들어 화답을 구했다. 하동은 나의 은부(가르침을 받은 스승)이다. 시축을 보니 느낌이 있어 네 절구를 지어 주고 돌려보냈다(子洞。孫從洽 讀書城南高山寺 一日持一軸來謁曰。河東鄭相公再遊於寺。皆有詩。亦有和者。寺僧學追爲之軸乞和。河東。我恩府也 見軸有感。爲和四絶還之)"고 밝혔다.

그도 한때 하동에 위치한 고산사에서 독서한 듯하다. 그러기에 "하동은 나의 은부"라고 했을 것이다. 그가 "평소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은 자신의 바람이 아니었다"고 한 것은 바로 "반백 공명은 한 끼의 달콤함"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치를 안 그였는데도 삶의 정도가 달랐던 연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고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요즘 우리의 현실은 "한 마리 쥐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말을 연상케 한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한 끼의 달콤함에 지나지 않는 권력의 힘은 바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선인들이 말했던가.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의리나 절제의 미덕을 들어 본지도 오래 되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고 점검해야할 시점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 영혼의 세계(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